**교제와 나눔**

**ㆍ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서로의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함으로 부활축하 인사를 나눕시다.

**ㆍ당분간 가정예배는 계속되겠습니다.**

**ㆍ말씀편지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JC 스페셜:** 4월 14(화)-16(목) 매일 20시 온라인 집회

(<https://zoom.us/j/314648357>) 이 주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ㆍ생일축하:** 강은혜, 김영수, 이유하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막16:1-20 월/겔33:1-20 화/겔33:21-33 수/겔34:1-16

목/겔34:17-31 금/겔35:1-15 토/겔36:1-15 일/겔36:16-3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3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4월 12일** | **4월 19일** | **4월 26일** | **5월 3일** |
| **예배기도** | 한상철 | 박상훈 | 조선형 | 어린이 |
| **말씀일기** | 정정아 | 석혜진 | 백윤정 | 어린이 |
| **안내위원**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애찬봉사** |  |  |  |  |

**37-15호 2020년 4월 12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부 활 주 일 가 정 예 배 (Ostersonntag)**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Eingangsgebet 요11:25-26 |
| 찬송/Gemeindelied 160장 무덤에 머물러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33번 |
| 찬송/Gemeindelied 165장 주님께 영광 |
| 기도/Gebet 한상철 장로말씀일기/Bibeltagebuch 정정아 집사찬양/Chor 167장 즐겁도다 이 날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가 16:1-8**  |
| 설교/Predigt **’끝이 끝이 아니라’**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설교자찬송/Gemeindelied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봉헌/Kollekte 봉헌송: 서민규 집사  |
| 광고/bekantmachung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축복/Segen 손교훈 목사**\*\*교회 구좌**Baek, Han-Jin Kim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BIC: DEUTDEDBDUE |

 |  |  |

**<설교>**

**끝이 끝이 아니라**(막16:1-8)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겠다고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한계를 넘어서는 너무 큰 사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1-2)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정성을 다하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 즉 관심사는, 무덤 문의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에 가까이 가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5)아 있습니다. **여인들은 놀랍니다.** ‘죽은 이에 대해 예를 다하러 갔는데, 그가 살아났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신학자 악테마이어(Achtemeier)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성실했다면, 여인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불성실했음이 드러났다. 그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이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었다.”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여겨지는 한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7,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소리쳐 외치고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좀 해봐야 하는 것**은, 적지 않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애초에 마가복음은 여기 8절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초기의 필사본들은 다 8절에서 끝이 나고 있기에,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더욱 강렬합니다. 물론 9절 이하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 구절들을 도려내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가 애초에 16장 8절에서 자신의 보도를 마치려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학적, 예술적 차원으로 봐도,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면, 둘 중의 하나, 아주 불성실한 결말이거나 아니면, 최고의 드라마틱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가는 후자를 의도했을 것이구요. 마가는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러 갔던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접하고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짧은 코멘트로 자신의 보도를 끝냄으로써, **역설적으로 복음 특히 부활에 대한 소위 독자들의 반응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는 의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러한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 결말을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명품 드라마가 될 작품들이 **결국 3류 드라마가 되어** 버리구요. 이와 비슷하게, 애초에 8절로 끝난 세계적인 명작 마가복음이, 뒤에 이런 저런 설명과 이야기가 붙음으로써, 결국 문학적으로 보면 3류처럼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ㅎ 손 목사가 성경을 3류 작품에 비유했다고 문제 삼으실 분이 우리 선교교회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 하나**는, 성경 기자가 기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마가가 이 기록을 남길 당시만 해도,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이 닥치게 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배교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가는 더욱 더 살아 있는 믿음을 강하게 촉구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초반부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등 다 생략하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소위 **공생애 시작부터 이야기를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마가는 그 **마무리도 충격적이면서도, 두고 두고 여운이 남도록, 많은 부분을 생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만나도록 도전하려던 것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마디로,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다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가의 의도 그대로를 더욱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서** 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래서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어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결코 믿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이미 이 놀라운 부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우들은 엄청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놀라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상황이 부활 사건, 그 소식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다시 한번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두려운 마음에 나와 주위를 살펴보게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결국은 책망이든 경고든, 사랑의 위로든, 그 어떤 형식으로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후대에 덧붙인 이들의 생각을 조금 읽어내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의심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만나 주셨는데**, 이 마리아가 다른 예수와 함께 하던 이들이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11)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12-13)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14)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복이지만, **지금 믿지 못한다 해서, 지금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부활 소식에 무섭고 떨린다 해서 너무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마음에 시선을 주며, 그 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지요. 요즈음의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통로로 우리가 교류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는 그것 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결코 여기에 만족하고 머무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만나 눈으로 보고, 서로를 만져보고, 안아 보며 기쁨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부활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 분을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전하는 이야기 수백, 수천번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눈으로 보듯이, 손을 맞잡듯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빈 무덤이나 세마포 등을 예수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세상 앞에 내민 최고의 증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활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 더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갇혀 있는 이 땅에 다시금 부활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끝이 끝이 아님을, 어둠이 절망이 아님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 결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결론으로 만나게 될 수는 없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있고, 부활 사건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않게 하시고, 더 키워가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 위기의 시기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가둬둘 수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신 오늘의 갈릴리로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